

**칼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산업으로

## - 2014 건설의 날 치사 -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뜻 깊은 건설의 날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건설산업은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건설인 여러분의 덕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인들이 공항, 철도 등 국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4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등 지구촌 곳곳에서 험난한 장애를 극복하며 건설 한국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서 해외건설 6대 강국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건설산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야말로 우리 200만 건설인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정세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져 왔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규제총점 관리제를 통하여 규제 감축 목표를 강력한 의지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00여 곳의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 안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건설산업은 위기 때마다 다 나라의 중심이 되어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건설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건설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여는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CERIK